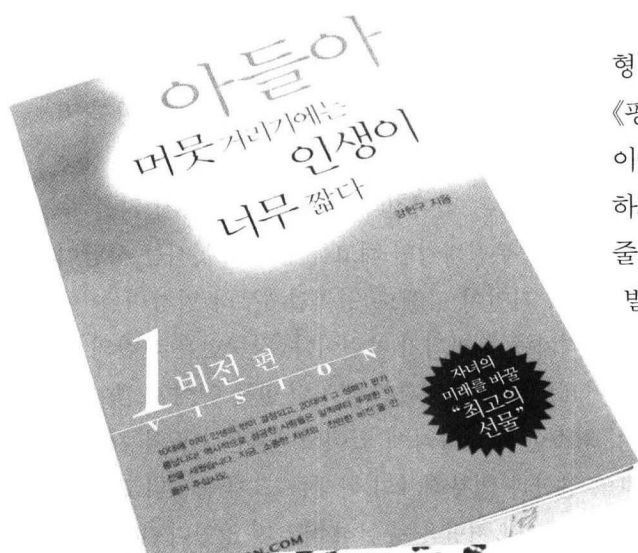


한국형 ‘청소년 자기계발서’ 의 색다른 두 갈래

글_ 김준호



2006년 상반기 출판계를 살펴보면 최근 신조류로 급부상한 ‘우화형 자기계발서’ 류의 선전이 눈에 띈다. 《마시멜로 이야기》를 비롯해 《핑》《배려》 등은 각각 뚜렷한 주제와 쉽게 읽히는 문체, 맛깔스러운 이야기의 힘을 독자들에게 선사하며 ‘즐거워 책읽기’의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실제로 자기계발서류의 책들은 이미 독서시장에서 하나의 줄기로 자리잡은 지 오래다. 그렇다면, 청소년 도서 장르 중의 자기계발서 분야에서는 어떤 책들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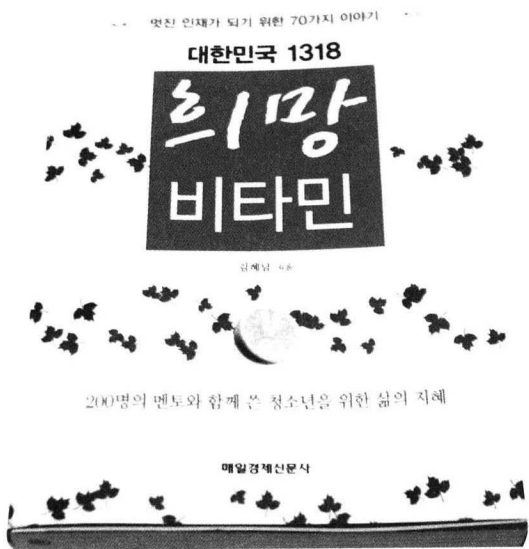
성인 도서 시장과 다르게 청소년 자기계발서 분야는 아직 다양한 책들이 쏟아져 나오지 않고 있다. 그런데 이 분야에서 유난히 한 저자의 이름이 자주 발견된다. 그의 이름은 필립 체스터필드.

청소년 자기계발서 코너에서 필립 체스터필드의 책을 찾기가 쉬운 일이다. 워낙 다양한 제목으로 여러 권이 나와 있는 데다 저자는 같기 때문. 그의 인기도(?)를 실감케 한다. 참, 이 책들의 공통점을 찾아보면 한 사람의 저자란 사실 이외에도 또 하나가 있으리라. 저자에게 지급되는 인세가 거의 전무하다는 사실. 그는 200여년 전에 사망한 인물이라서 저술품에 붙는 저작권료가 없기 때문이다. 물론 그의 저작에 따라붙는 인기가 이것 때문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이지만.

체스터필드가 자신의 아들에게 쓴 이 글은 출간 직후 영국 상류사회의 자녀들을 위한 교과서로 쓰일 만큼 대단한 인기를 끌었다. 아이러니하지 않은가? 영국 상류사회의 자녀들을 위한 교과서가 200여년이 훨씬 지난 현재 한국 청소년을 위한 자기계발서로 대접받으며 서점에 쏟아져 나오고 있으니 말이다. 이는 우수한 청소년 자기계발서의 품귀 현상을 반증하는 것 같아 조금 씩씩하기도 하다.

필립 체스터필드의 책들을 지나 두 권의 한국 저자가 쓴 자기계발서 책과 만난다. 바로 이번 달에 소개할 두 권의 청소년 자기계발서, 《아들아, 머뭇거리기에는 인생이 너무 짧다》(강현구 지음/한언, 이하 《아들아……》)와 《대한민국 1318 희망비타민》(김혜남 지음/매경출판, 이하 《……희망비타민》)이다.

《아들아……》는 투박한 표지 디자인과 달리 마치 부모가 자식에게 세심하게 이야기하는 듯한 매력적인 문체와 머릿속에 쑥쑥 들어오는 콘텐츠를 지녔기에, 들고 다니며 읽기 좋은 책이다. 특히 저자는 미국의 저명인사들이 청소년 시절이나 인생에서 꿈을 갖고 비전을 키웠던 생생한 사례들을 다채롭게 소개하고 있다. 마치 갓 구운 빵에 갓 만든 버터를 발라 먹었을 때 느끼는 충만감(?)을 느끼게 하는 《아들아……》. 이 책은 초판이 나온 이후 200쇄에 가깝게 꾸준히 발행되며 국내 청소



●이 글을 쓴 김준호는

단행본 출판 에이전시 ‘서울출판정보’ 대표. 10대 대상 신문과 잡지 기자, 《한국고교신문》 편집장을 역임했다. 청소년 도서의 저자와 기획자로 활동하고 있다. 기획한 책으로 《이범의 공부에 반하다》(한스미디어), 《10대의 꿈을 실현해주는 진로코칭》(북하우스) 등이 있고, 저술한 책으로 《영어에 성공한 사람 13인이 털어놓는 영어학습법》(홍익미디어), 《명강사 13인의 7차 수능공략》(한경 BP) 등이 있다.

년과 학부모들에게 여전한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스테디셀러다. 1편 '비전', 2편 '커뮤니케이션', 3편 '리더십', 4편 '바디 마인드'를 비롯해 어린이를 위한 만화도 나왔고, 구체적인 실행지침을 다룬 '실행복'까지 출간돼 독자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으니 더 이상의 말이 필요하랴.

이 시리즈 중 1편인 '비전'에서 소개된 이야기들 중 '켄터키 후라이드 치킨' (KFC) 편을 살펴보자(독자 여러분께 요즘 식으로 말하자면, '이 이야기엔 스포일러가 담겨 있다'). 할랜드 샌더스는 평범한 직장을 다니다 우연한 기회를 맞아 39세의 나이에 식당을 차렸다. 늘 성실하고 원대한 포부를 갖고 있던 그는 어머니에게서 배운 미국 남부 지방의 토속음식인 닭튀김을 맛있게 조리했고 그 요리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식당 사업에 뛰어들었다.

그런데 샌더스에게도 시련이 닥쳤다. 식당 앞 도로 대신 다른 곳에 새 도로가 생기면서 손님이 줄어든 것. 상권이 크게 변동되면서 위기를 맞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더 적극적으로 사업에 임했다. 위기 타개책으로 닭튀김 요리비법을 전수하고 로열티를 받는 프랜차이즈 사업을 실시했을 때 그의 나이는 65세였다. 생물학적 연령에 꺾이지 않는 열정!

우리가 KFC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할아버지 동상(또는 심벌마크)을 기억하는가. 배가 볼록 튀어나온 귀염둥이 할아버지가 바로 할랜드 샌더스였던 것이다. 이 책을 읽으며 독자들은 무심코 넘겼던 할아버지에게 흥미를 느끼게 되고, 심지어는 반해 버릴 수도 있다. 코미디언이나 만화 캐릭터로 오해받기 쉬운 할아버지지만 청소년에게 충분히 깨달음을 줄 수 있는 인생을 살았던 인물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 책은 재미있는 일화를 통해 저명인사들의 꿈과 비전을 소개하고 있다. 그럼으로써 독자들에게 되도록 일찍 확고한 비전을 가질 것을 강조하고 리더십 육성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번엔 《……희망비타민》에 대해 얘기해 보자. 올 초 중학교에 입학하는 남자 조카의 입학식에 갔다. 벌써 중학생이 됐다는 것이 대견하기도 하고, 무엇인가 좋은 덕담이라도 건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마땅한 말이 떠오르지 않아 막연하기만 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우연히 서점에 들렀다가 이 책에 눈길을 주게 됐다. '누군가에게 선물하고 싶은 책'으로 잘 맞는 독특한 스타일, 즉 멘토들의 조언을 조화롭게 엮은 책이기 때문이었다.

청소년 시절, 누구든지 한번은 꿈꿀 수 있는 명제는 '멋진 인재'가 되는 일이다. 그렇다면 그 방법은 무엇일까. 아마도 세상을 살아가는 안목과 지혜가 아닐까. 그런데 한

국 청소년들은 바쁘다. 공부에 쪼들려간다. 그래서 여유가 없는 편이다. 이 점을 저자인 김혜남(문일고 교사/자테크연구소 소장)은 머리말에서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청소년은 그 풍성한 감성과 생각의 시기를 마치 전쟁과도 같은 대학입시의 제단에 바치고 있어요. 물론 대학입시는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출신 대학이라는 이름표를 무시할 수 있는 사람은 드무니까요. 하지만 나무 하나하나에 대해 많이 알면 알수록 숲을 정복하기 쉽다고 하죠. 숲 속에 들어가 나무에 대해서만 공부하다 보면, 숲 전체의 변화를 눈치 채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 청소년들은 바로 나무만 들여다보고 있는 형국입니다. 장차 자신이 나가 활동해야 할 사회가 지금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자신들이 주역이 돼야 할 세상은 어떤 인재를 요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생각할 여유도 없이 공부로만 내몰리고 있는 현실이지요."

이 책을 쓴 김혜남 저자는 한국 청소년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현직교사다. 더욱이 고3 진로지도 경험이 풍부하고, 매년 개정판이 나올 정도의 스테디셀러인 《나는 수시로 대학 간다》를 집필한 바 있는 입시전문가이기도 하다. 또 젊은 시절 방송전문패널, 기자 등 다양한 직업 활동을 통해서 만난 200여 명의 경쟁력을 갖춘 멘토와의 경험을 책 속에 진솔하게 풀어내고 있다. 그래서 '공부 이외의 삶의 지혜를 갖는 청소년이 돼라'라는 그의 주장은 더욱 설득력을 갖는다.

이 책은 자녀들이나 조카들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따뜻하고 가치 있는 콘텐츠의 모음집 같다. 먼저 부모가 읽어 보고 공감하기 좋은 데다, 자녀에게 한 번 권할 수 있는 자녀교육용으로도 쓰임새가 있다. 이 책이 최근 '대한출판문화협회 선정 청소년 권장도서'가 된 것도 이런 점 때문일 것이다. 앞으로도 청소년 도서와 멘토링의 만남이 더욱 좋은 결과물로 더 많이 나오리라는 생각이 든다.

우화형 자기계발서 중 성인 도서 분야를 보면 질적으로도 많은 발전이 있는 반면, 그동안 청소년 분야의 자기계발서를 보면 아직 다양하고 깊이 있는 기획물의 품귀 현상을 느끼게 한다. 앞서 언급했지만 저작권료가 없는 200여 년 전 인물의 저술이 우후죽순처럼 재출간되는 것이 그 반증이다.

그러나 비전 제시와 멘토링 등 독특한 장점을 내세우고 있는 두 권의 책을 보며 우리나라에서도 얼마든지 좋은 이 분야의 책이 나올 수 있다는, 그리고 이미 나왔다는 자신감을 가져 본다. 앞으로도 한국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는 책, 특히 재미있고 유익한 청소년 자기계발서들이 지속적으로 출간되기를 기대해 본다. ☞